

社 說

국민동의 없는 정권 퇴진해야

—현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

많은 사람들이 분신 또는 투신자살하고 있다. 박승희, 김영균, 천세용, 박창수, 김기철, 윤용하, 강난... 후자는 이에 대해 '생명경시'나 '배후조종'이니 하는 설을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질 지도 모르겠다. 마치 유행처럼 번져나간 분·투신자살은 '자살 소동'이라는 픽션영화까지 실감케 한다.

이에 덧붙여 검찰은 자살을 배후조종한 세력이 있을 것이라고 맹신하며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다루어진 배후조종설, 최근 날짜의 신문들을 보면 진짜 배후조종설이 있을 것 같은 착각마저 들게 한다. 그러나 윤봉길 의사같은 희대의 영웅이 아니 고서야 평범한 소시민이 민주를 열망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구의 지시를 따를 리가 있겠는가.

기실 검찰의 이 발표는 정권의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보이지 않는 힘을 찾는다는 빌미로 광범위한 정권타도의 합성에 역공세와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맞불을 놓자는 의도일 것이다.

각계각층에서 시국선언 및 시위참가자가 늘어나고 있다. 열사들만이나 현정권에 대한 투쟁의 필요성이 커져가는 지금 '더이상 열사는 필요없다'라는 구호 유사한 의미를 전달한다.

현시국을 염려하는 국민들의 행동과 대화에서도 사태의 엄정함을 더해주고 있다. 지식인을 필두로 한 철야·단식농성, 시국성명서 발표가 연이어 나오는 상황에서 지난 8일 본교 35인의 교수들 비롯, 각대학 교수들이 87년 6월처럼 시국을 염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수의 시위참가,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시국사명 확산, 종교계 인사들의 철야·단식농성 등 반사회·반민주적인 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항의표사에서 최고의 행동까지도 전개되고 있다. 이시대, 우리 사회의 양심은 아직 살아있다는 안도감이 들게 하는.

각 대학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고등학생들의 조직적 시위참가도 눈에 띄게 나타난다. 지난 9일 전국 각지역에서 벌어진 시가전을 방불케 한 대치상황에서도 우리는 지금의 시국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소위 이 위기사국에 대해 계속되는 분신·투신 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유가 아까졌던 불행한 자기희생은 이제 그만 이어져야 할 시점에서 그들을 주검에 이르게 한 현실에 대한 분노를 잠재울 수는 없다. 이와 함께 민주주의의 갈망이 이제 열사의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목이 타들어가듯 갈망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기회주의적 양당은 어떠한가. 그들의 본질이 충분히 폭로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열사의 시선에 뒤흔들린 행동을 취하고 있다. 한쪽발은 정권당파들과의 타협의 장에, 한쪽발은 소위 '장외투쟁'이라고 하는 가두에.

이는 국회에서 처리된 개혁법안에서도 명확히 나타난다.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경찰법·의원직위법·환경법 등의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회주의적 속성과 계급적 본질을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민중들은 이 시점에서 무엇을 요구하여야 하는가. 노재봉내각의 사퇴가 정권의 퇴진없이 얼마만큼의 개혁을 보장할 수 있는가. 하물며 그들은 합헌적 국가권력을 도중에 하차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다. 노태우대통령이 중간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했던 공약을 스스로 동전뒤엎듯 바껴버린 2년전, 5공청산은 얼마나 이루어졌으며 곧바로 생겨난 민자당의 정치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헌법은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것인가. 국민들의 동의 없는 국가권력은 존재할 수 없다. 더우기 국민들이, 대다수 민중들이 인정할 수 없는 권력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범국민적 정권퇴진의 합성이 청와대에선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

지난 7일 박창수씨의 시신발취사건을 고통스럽게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영안실 벽을 허물고 들어온 백골단의 모습을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 사건은 두번 죽이는 꼴이었으며 그들이 의도한 부검 결과 또한 어처구니 없는 발표였다.

우리는 아직까지 폐물사건을 기억한다. 또한 제벌을 위해서만 정치하는 그들이 만들어낸 불평등, 수서특혜분양사건을 기억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용한 노동자에게 독가스독자법정, 최루탄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그렇다면 정권이 지향한 '민주화'는 또 어디까지 왔다. 언론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제도적, 정치적 민주화는 환상에 불과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89년부터 계속된 공안동치와 노동운동탄압, 5공회계적인 폭압, 비리... 단지 부패교류와 대부정에서 한정된 개방과 개방화를 창출했던 정부가 진정한 민주화를 요구해 온 세력을 또 얼마나 탄압해왔는가.

이제 우리의 요구는 너무나 확실하다. 정치를, 국가권력을 책임질 수 없는 현정권은 원점으로 돌아가라. 국가권력을 담당할 능력이 없는 그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반역사상을 대변한다. 정권을 퇴진해야 하는 진정한 주인으로... 현정권은 폭력으로 지배해온 현재의 위치에 더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이 사회와 나라의 주인에게 잘못된 권력을 돌려주고 우리 모두가 해방되는 세상으로 가야 한다. 정치는 그들이 가진 지배도구만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득이 구속노동자·학생·시민을 양산했던 그들이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다. 그들은 자신이 폭압기구에 의해 억으로 지배 속박당하지 않았는가. 그들이 취하는 공권력에 의한 폭력을 사용하며 민중들이 자신의 요구와 권리를 찾고자 하는 행위는 당연하다. 지금은 이를 늦추어서는 안된다.

최근 나약했을 우리의 모습은 극복되어야 한다. 대학에서 외치던 구호가 거리로 흘러나간다고도 진정한 변화는 쉽지 않다. 우리는 조직화된 집단의 외침으로 부당한 지배질서를 깨고 민주주의의 참모습을, 해방의 확신을 민중들에게 안겨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자신 내부에서부터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전체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독재권력은 자신의 통치위기가 구체화될 때 마다 공명적으로 더 큰 위기의 상황을 연출하고 당위를 명분으로 합법을 가장하여 안정적 권력의 유지를 시도한다. 분단 47년을 지나 오면서 독재권력이 사용한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메뉴'는 바로 '반공'과 '안보'이다.

그 대표적인 경우는 군부독재의 시발이 된 제3공화국으로 박정희 정권은 집권의 직접적 계기가 된 5·16당시 '반공을 국시로 하여 조국통일보다 상위에 두고 아울러 북괴의 남침에 대비한 안보체제의 확립'을 혁명공약의 제1로 삼았다. 결국 박정희 정권은 권력의 공백기를 이용해 아무런 문제 없이 집권에 성공한다. 또한 3공화국은 통일의 결정적 계기로 발전할 수 있었던 1972년 '7·4남북공동성명'당시에도 역시 '반공'과 '안보'의 논리로 공동성명 바로 3개월뒤에 '10월 유신'을 감행하여 장기집권의 태세를 확립하는 계기로 삼는다.

비슷한 경우는 전두환 정권에서도 찾아 볼수 있는데 제5공화국은 정치권의 혼란과 정국정색으로 통치권의 위기에 봉착하자 북쪽의 '금강산 댐'의 건설과 관련, '북괴의 수공'에 대비한다는 명분아래 '평화의 댐'건설을 추진하여 막대한 국민의 세금과 성금을 낭비한다. 속칭 '백골단'의 폭력적 시위진압으로



우려되는 정권의 반공 이념공세

비롯된 '타실정국'이 '분신정국'으로 옮겨 붙은 가운데 지난 한 주 전국은 격렬한 반정부·정권퇴진투쟁으로 전쟁상황을 방불케 하였다. 이에 따라 각 언론은 현정국을 '6공화

국 최대의 위기'로 앞다투어 보도하였으며, '공권력 만능주의가 빚어낸 국민의 저항'으로 사건의 본질을 애써 축소시키려는 태도를 보였다. 예전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본다면 '권력 최대의 위기'국면이라는 이즈음에서 한민족 '반공' '남침' '안보'등 권력의 이념적 공세를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이러

한 일방적 정보 공세로 여론을 조작하여 권력의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했을 때 문제다. 물론 우리의 언론이 나름대로의 자정과 변신을 통해 예전보다 많이 성숙되었다고 한다. 그 때문인지 아직은 북한원전에 대해 사실 보도에만 충실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남북타구 단일팀 개선에 대해서도 2·5g 작은공의 위력'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회망적 보도에 충실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엔가 민중에게 등을 돌릴지도 모르는 언론에 대한 큰 기대를 품을 수는 없다. 그정도로 우리언론에 대한 배신감의 골은 깊다. 후시나 감행될지도 모르는 권력의 안보노리 공세와 그에 대한 언론의 권력유착을 우려하며, 권력과 언론의 오만을 엄중히 경고한다. 분단이라는 오욕의 역사에 빚어낸 정권 편의적 이념공세가 더이상 독재권력의 유지를 위해 이용될 수는 없다.

(특집부)

5월 정세전망과 민중운동의 대응방안

총파업, 정세의 방향타

현 정세에 있어 민중운동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조건들이 몇가지가 있다.

그 첫번째는故 강경대열사의 죽음과 잇따른 분신·투신이 가져다 준 고양되어 있는 정권퇴진요구의 범국민적 확산이다.

두번째는故 강경대열사의 폭력살인규탄을 중심으로 투쟁해왔던 '범국민대책위'활동을 통해 그간에 공동투쟁대열을 구축하기 힘들었던 상황을 탈피해 공동의 대열을 꾸렸다는 것이다.

세번째, 향후 정세 속에서 노동자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조건이 작년보다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초부터 정부에 의한 강도 높은 노동탄압을 받아온 결과 많은 사업장의 노조가 무력화 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입투기간을 맞이하여故 박창수(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씨의 의문사와 노동자간의 분신을 매개로 철회되었던 전국 공

동투쟁의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현재 원전폐쇄운동을 비롯한 전국 1백여개 사업장에서 파업과 쟁의발생신고 및 결의를 모은 상

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故 강경대열사의 죽음 이후 지금까지 투쟁의 양상을 보면 결코 앞으로의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그것은 87년 6·10항쟁의

분·투신 공동투쟁 계기로 작용 민중요구 배제된 규탄투쟁 탈피해야

결과와 작년의 고양된 정세가 개량화되었던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번의 투쟁 또한 개량화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우려를 감출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이번 투쟁의 동력이 계급적인 투쟁이 아니라 도덕적인 투쟁이었고, 다분히 계급적인 투쟁이었으며 그간의 요구들이 '내각총사퇴', '백골단해체'등의 본질을 파헤치지 못한채 현 정권이 발을 뺄 수 있는 소지를 너무 많이 남겨준 것들이

러한 현실을 냉혹히 판단해 볼때 지금까지의 투쟁에서 내걸었던 '우호론'은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들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노동운동전선에서는 향후 투쟁의 매개를故 박창수씨죽음 진상규명으로 놓고 노동운동탄압 분쇄와 입투에 역점을 둘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5월 18

일단결하는 것이다. (조인성記者)

대학주보연혁 "격동의 정희역사 산증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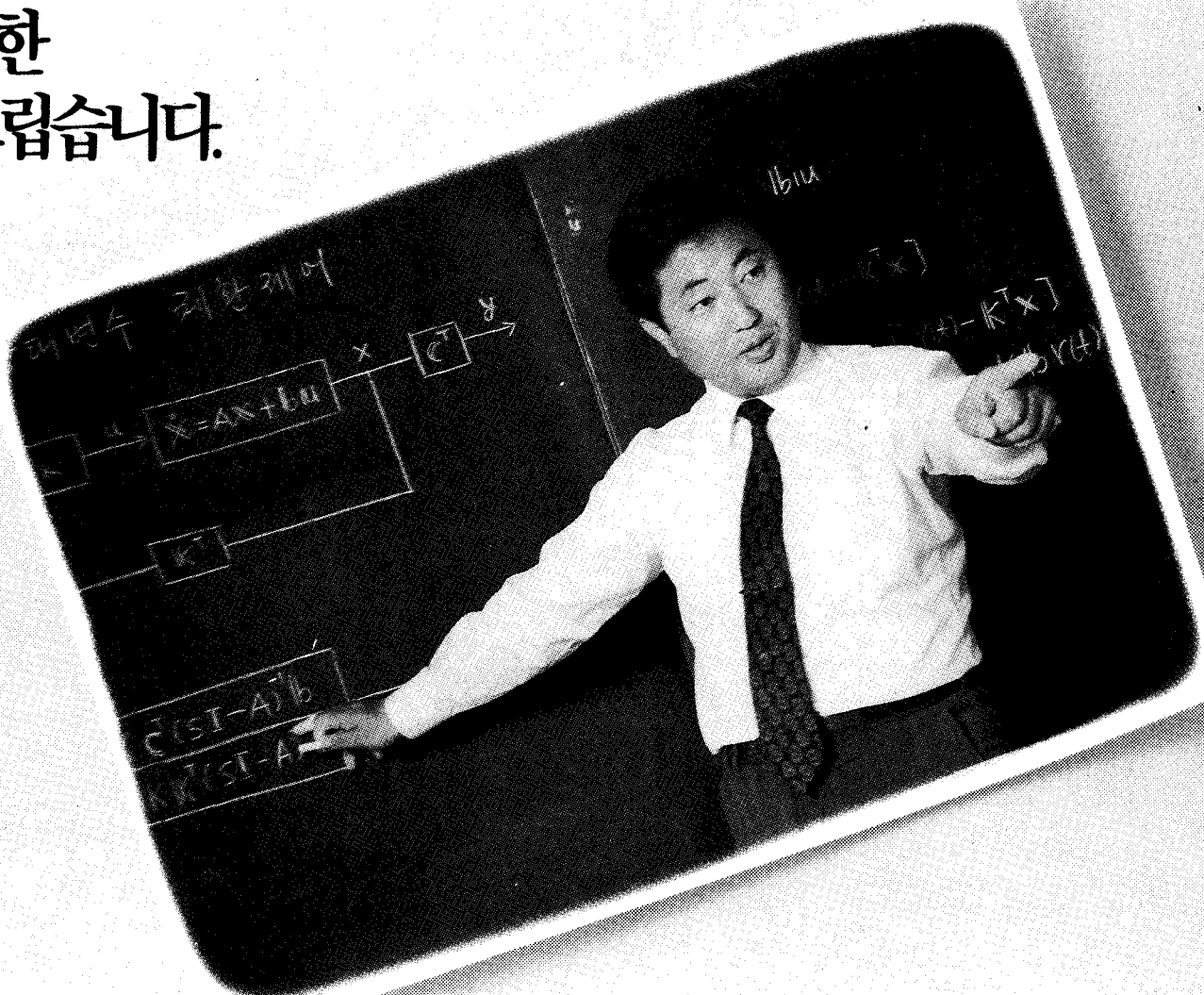
- ▲1955년 5월 12일 '신동대학보'라는 제호로 창간. 전 조선건국운동에서 매일 15일과 30일 발행, 초대 주간 이원우교수 편집국장 이규종교수
- ▲10월10일 제8호부터 월2회발간에서 주간(旬刊)체제로 변경. 편집실 교과사로 이진후 편집국설치.(편집부·업무부·조사부로 분리)
- ▲1960년 3월25일 지령 100호발간. '경희대학주보'로 제호변경. 발간부수 1만부로 확대.
- ▲6월20일 106호부터 지금의 제호인 '대학주보'로 변경.
- ▲1963년 3월 신문부수 1만5천부로 확장.
- ▲9월30일 대학신문사상 처음으로 '대학뉴스'의 일간지 발행.
- ▲9월25일 신문발행부수 당시 최대인 2만부로 확장.

- ▲1965년 3월 대학주보·방송국·영자지통합 신문 방송국으로 개편.
- ▲1979년 4면체에서 월1회 8면체로 교체.
- ▲1981년 주간 4면·8면체로 변경.
- ▲1982년 매주 8면체로 정착.
- ▲1984년 4월2일 지령 800호를 발행하면서 현행과 같은 '가로쓰기신문' 도입.
- ▲1985년 3월11일 주간 12면 발행.
- ▲1987년 11월10일~13일 자유언론쟁취를 위한 신문제작거부 및 철야농성.(사전 검열철폐투쟁)
- ▲1988년 3월14일 창간33주년 지령900호 발행.
- ▲1990년 11월6일 수원캠퍼스 신문방송국 개관.
- ▲1991년 5월12일 창간36주년.



祝 開校 42周年

고향동산처럼 넉넉한 미소와 가르침이 그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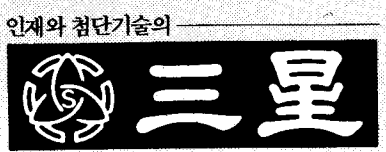
박 중 국 교수 (경희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학과장)

꿈을 펴는 젊음, 미래를 경영하는三星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경희의 넓은 캠퍼스 신록이 교수님의 넉넉한 미소와 함께 마냥 그림습니다. 경희의 교수님의 그 너른 울타리를 떠난지 벌써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 발밑에 갑자기 펼쳐진 듯한 새로운 세계에, 끈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던 기억도 새롭습니다. 그제서야 누누이 일러주시던 '대학 4년을 인격과 자아 실현, 성실한 실력연마의 무대로 만들라'는 말씀이 절감되어 남몰래 큰 숨 한탄 몰아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경희인의 긍지와 교수님과 같고 닮았던 학문,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성실의 힘을 제 마음대로 갈을 수는 없다는 돌아보면 참으로 열심히 뛰었던 나날이었습니다. 멀게만 느껴지던 우리 기술의 현실, 기업의 현실, 나아가 나라의 현실 등이 그대로 저희들의 책상에, 연구실에 실재적 업무로 놓여지고 있었습니다. 이때전쯤의 학회의 밤에서 되였을 때, 최초의 국산 '전전자 교환기'를 하나 하나 개발해 나가며 '학급'을 넣는 거위를 기우고 있다는 저의 자랑스런 너스레를 기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때도 교수님은 예의 그 '성실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경희의 캠퍼스만큼이나 넓은 이 새로운 무대에서 성실과 끈기로 저희는 신 전자교환기 'TDX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얼마전 최초로 해외에 수출하면서 더 큰 삼성인이자 경희인이 됐다는 감격도 맛보았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우리 앞에는 또 다른 광활한 땅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슨 유행가처럼 터져 나오던 기술정책, 후발 개도국의 추격, UR입력 등에 의한 아우성이 우리 정보통신업계에도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뭔가 보일려고 애쓰지 마라. 뭔가 하려고 부단히 애쓰는 이만이 값진 성취를 이루어내지.' 그래서 10여년전의 어느 술자식에서 주셨던 이 말씀이 더 간절 새겨지는가 봅니다. 성실해야말로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특별히 보여주시던 가르침으로 이 정변을 넘어 더 자랑스런 교향연으로 다시 안부 드리겠습니다. 모처럼의 인사에 제 말씀만 길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교수님께도 안부 전해주시고 내내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넉넉한 미소와 묵묵히 행동하는 가르침으로 더욱 자랑스런 경희인을 키워주십시오.

경희 건학 42주년 5월 제자 김 영 석 올림 (82년 경희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삼성전자 정보통신부 경영혁신팀 과장)



인재와 첨단기술의三星